

# 국어 이중주어 구문의 어휘론적 구조기술 \*

박 효 명  
(전남대학교)

Park, Hyomyong. 1998. A Lexicalist Approach to the Structure of Double Subject Construction in Korean. *Linguistics*, 6-1, 23-44. In Korean most adjectives and intransitive verbs, both of which have primarily one argument, have a syntactic function as a lexical head in a double subject construction which has two syntactic arguments. A relational constraint I propose in this paper, called Argument Adding Constraint, operates on the inherent argument structure of adjectives and intransitive verbs to form a new argument structure to which newly-added argument belongs. This enables us to enrich the information of grammatical relation represented by a lexical head and to describe fully the binding phenomenon shown in the double subject constructions in Korea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1. 서론

국어의 이중주어 구문은 특이한 통사-의미적 구조를 보여준다. 필자의 이전의 연구는 이 구문을 독립된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 유형에 고유한 제약을 제시하여 그 구조를 기술하였다.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는 핵어문법 이론은 문법적 관계(grammatical relation)를 구성성분의 결합과 관련된 항가자질(valence feature)과 결속이론을 전개하는 자리인 논항구조(argument structure)라는 두 개의 분리된 수준(level)에서 나타낸다. 이는 어휘핵어로 하여금 충분한 통사적 정보를 갖도록 하는 어휘주의적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입장에서 어휘핵어의 논항구조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여 국어의 이중주어 구문의 구조를 기술한다.

---

\* 이 논문은 1997년 전남대학교 학술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2. 이중주어 구문의 특성

대부분의 언어는 동사와 하나의 주어가 결합하여 문장을 형성한다. 이와 다르게 국어에서는 동사는 물론 형용사와 하나의 주어가 결합하여도 문장이 형성된다. 이런 점에서 우리 문법은 동사와 형용사를 포괄하여 주어와 결합하여 문장을 형성한다.

- (1) a. 영수는<sub>SUBJ</sub> [영화를 좋아한다]<sub>VP</sub>.  
 b. 별이<sub>SUBJ</sub> [보인다]<sub>VP</sub>.  
 c. 코가<sub>SUBJ</sub> [길다]<sub>AP</sub>.

이 예문들은 타동사구, 완전 자동사구와 형용사구가 하나의 주어와 결합하여 형성된 문장이다. 이들은 모두 하나의 주어를 가지므로 이러한 유형의 구절기호를 논의의 편의상 단주어 구문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러한 문장의 유형 가운데 완전자동사를 어휘핵어(lexical head)로 가지는 (1b)는 이미 하나의 주어와 결합하여 문장을 이루고 있으나, 이 문장이 또 하나의 주어와 결합하여도 역시 문장을 형성한다.<sup>1</sup>

- (2) a. 밤이<sub>SUBJ1</sub> [별이<sub>SUBJ2</sub> [잘 보인다]<sub>VP</sub>]<sub>VP</sub>.  
 b. 총장로가<sub>SUBJ1</sub> [사람들이<sub>SUBJ2</sub> [항상 봄빈다]<sub>VP</sub>]<sub>VP</sub>.  
 c. 친구들이<sub>SUBJ1</sub> [여럿이<sub>SUBJ2</sub> [모인다]<sub>VP</sub>]<sub>VP</sub>.

(2)는 모두 두 개의 주어를 가진 문장이지만 그 어휘핵어인 ‘봄비-’, ‘모이-’와 ‘보이-’는 모두 완전자동사이다. 이 구절기호의 유형은 두 개의 주어를 가진다는 점에서 이중주어 구문이라는 새로운 유형이 된다. 여기에서 문장에 나타나는 두 개의 주어를 편의상 제1주어와 제2주어라 하고, 이를 각각 SUBJ1와 SUBJ2으로 표기한다.

- (3) a. 코끼리는<sub>SUBJ1</sub> [코가<sub>SUBJ2</sub> [길다]<sub>AP</sub>]<sub>AP</sub>.  
 b. 핵어문법이<sub>SUBJ1</sub> [재미가<sub>SUBJ2</sub> [없다]<sub>AP</sub>]<sub>AP</sub>.  
 c. 할머니는<sub>SUBJ1</sub> [그 사람이<sub>SUBJ2</sub> [싫으셨다]<sub>AP</sub>]<sub>AP</sub>.

---

1. 불완전자동사는 주어 외에 하나의 보어를 가진다. 불완전 자동사 ‘되다’는 유일하게 선행하는 명사가 주격조사와 동일한 형태인 조사 ‘-이/-가’를 가지도록 요구하지만 서 정수(1996:440-441)와 김 동식(1984)의 주장에 따르면 역시 보어이다.

위 예들은 완전자동사와 마찬가지로 어휘핵어인 형용사도 두 개의 주어를 가지는 것을 보여준다. (2)와 (3)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준다. 제2주어와 완전자동사구/형용사구와 결합은 완전히 포화된 문장을 형성한다. 그러나 이 구절기호는 그 자체로서 완전히 포화된 문장의 형태를 가지지만 마치 비포화된 술어구(predicate phrase)처럼 다시 제1주어와 결합하여 새로운 문장을 형성한다.

이러한 현상이 규칙적이라는 사실은 다음과 같이 형용사를 어휘핵어로 가지는 구절기호의 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4) a. 백양사는<sub>SUBJ1</sub> [대웅전이<sub>SUBJ2</sub> [불상이<sub>SUBJ3</sub> 크다]<sub>AP</sub>]<sub>AP</sub>.
- b. 이 학교는<sub>SUBJ1</sub> [학생이<sub>SUBJ2</sub> [질이<sub>SUBJ3</sub> 높다]<sub>AP</sub>]<sub>AP</sub>.
- c. 이 밭은<sub>SUBJ1</sub> [딸기가<sub>SUBJ2</sub> [맛이<sub>SUBJ3</sub> 좋다]<sub>AP</sub>]<sub>AP</sub>.

완전자동사를 어휘핵어로 가지는 구절기호가 세 개 이상의 주어를 가지는 현상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이 구절기호가 두 개의 주어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과 문장의 형태를 가진 포화된 형용사구에 새로운 주어가 차례로 첨가될 수 있다는 사실은 규칙적인 현상이다. 몇 개의 새로운 주어가 이러한 유형의 구절기호에 첨가될 수 있을 것인가는 담화(discourse)의 맥락과 언어외적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 두 유형의 술어구에 새로운 주어가 첨가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다.

타동사가 어휘핵어인 경우에는 이와 다르다.

- (5) a. \*미자가<sub>SUBJ1</sub> [영수는<sub>SUBJ2</sub> [영화를 좋아한다]<sub>VP</sub>]<sub>VP</sub>.
- b. \*영수가<sub>SUBJ1</sub> [미자는<sub>SUBJ2</sub> [영화를 좋아한다]<sub>VP</sub>]<sub>VP</su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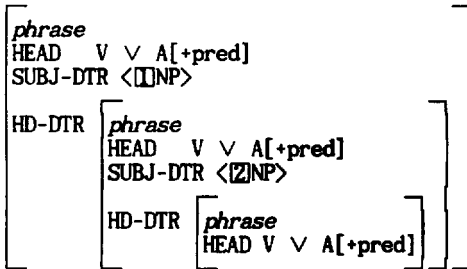
반면에 술어구인 타동사구가 주어와 결합하여 문장의 형태를 가진 포화된 구절기호를 형성하고, 이 구절기호에 새로운 주어를 첨가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비적형적인 문장이 된다. 이는 중주어(重主語) 구문은 언제나 완전자동사/형용사가 주어인 구성성분과 결합하여 단주어 구문인 유형의 구절기호를 형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 (6) a. [미자<sub>i</sub>는<sub>SUBJ1</sub> [자기<sub>i</sub>가<sub>SUBJ2</sub> [싫다]<sub>AP</sub>]<sub>AP</sub>].
- b. [미자는<sub>SUBJ1i</sub> [[자기<sub>i</sub>가 영리한 것]<sub>i</sub>]<sub>SUBJ2</sub> [좋다]<sub>AP</sub>]<sub>AP</sub>.



이 제약은 단주어 구문이라는 유형의 고유한 자질구조를 나타낸다. 이 유형은 문장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주어자범주(subject daughter)인 명사구와 구절핵어(phrasal head)인 술어구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다만 여기에서 술어구는 이미 언급한 동사구와 형용사구를 [V V A[+pred]]로 나타내었다. 이는 실제로 핵어-주어 도식(Head-Subject Schema)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자질구조의 형태로 나타낸 것이며, 다음에 제시하는 유형인 이중주어 제약과 일관성있는 명칭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9) 이중주어 구문의 제약 (1차)



(9)는 (8)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문장을 형성할 수 있는 주어와 술어구인 구절핵어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 구절핵어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부의 자질구조가 (8)의 제약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제약이 보이려는 중요한 의도는 (8)에 나타난 모든 [SUBJ <[1NP]>]가 단주어 구문의 주어를 반영하고 있으며 동시에 앞에서 말한 이중주어 구문의 제1주어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SUBJ <[2NP]>]는 제2주어를 반영하며 이들은 AVM의 가장 안에 들어있는 HD-DTR의 AVM 내부에 표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8)은 제1주어와 완전자동사구/형용사구인 구절핵자범주(phrasal head daughter)가 결합하여 이중주어 구문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자질구조와 이 구절핵자범주가 제2주어와 완전자동사구/형용사구가 일차적으로 결합하여 이루어진 술어구라는 자질구조를 가진다는 사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9)는 구성성분의 결합으로 완성된 이중주어 구문이라는 유형이 가지는 자질구조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 구문의 생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주어와 완전자동사구/형용사구의 결합으로 구절

기호를 형성하도록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음의 핵어-주어 도식(head-subject schema)은 이를 보장한다.

(10) 핵어-주어 도식 (Head-Subject Sche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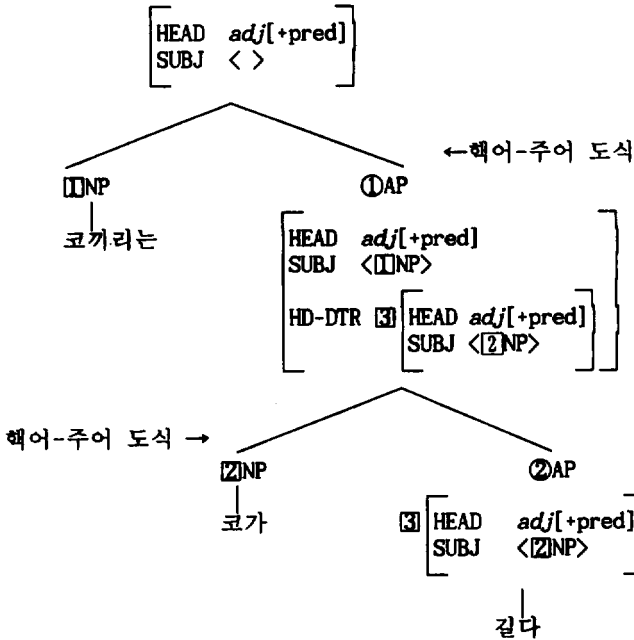
$$X \rightarrow \text{Head-Dtr}[\text{Phrase}, [\text{SUBJ} \langle \boxed{1} \rangle]], \text{Subj-Dtr}[\text{SYNSEM} \boxed{1}\text{NP}]$$

이는 단주어 구문의 유형을 기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단주어 구문이 일종의 술어구의 기능을 하므로 다시 이 도식이 적용되면 이중주어 구문의 형성을 보장하게 된다. (10)에서 핵자범주(Head-dtr)는 구절기호이고, 이와 결합하는 주어자범주(Subj-dtr)의 SYNSEM 값은  $\boxed{1}$ 로서 핵자범주의 SUBJ의 값과 구조를 공유한다. 이제 (9)와 (10)은 협동으로 다음과 같은 이중주어 구문의 구조를 보장하게 된다.

(11)a. 코끼리는<sub>SUBJ1</sub> [코가<sub>SUBJ2</sub> [길다]<sub>AP</sub>]<sub>AP</sub>.

b.

S



(11)은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②AP는 단주어 구문의 제약과 핵어-주어 도식에 의하여 ①AP를 형성한다. 다음 단계로 핵자범주인 ①AP과 제1주어인 ②NP는 이중주어 구문의 제약과 핵어-주어 도식에 의하여 최상위에 있는 마지막 단계의 구절기호인 문장(=S)을 형성한다. 이는 제1주어가 제2주어를 포함한 형용사구의 주어라는 사실을 반영한다. 핵자질원리(HFP)는 핵자질인 [adj[+pred]]가 어휘핵어로부터 전수되어 마지막 S가 형용사구임을 보장한다. 특히 ①AP의 HD-DTR은 이미 제2주어와 결합하여 주어를 포함하고 있는 형용사구라는 사실을 대역기호(tag) ③을 이용한 구조공유(structure sharing)에 의하여 반영하고 있는 점은 유의할 점이다. 그리고 그 내부의 [SUBJ <②NP>]는 ②AP의 [SUBJ <②NP>]와 동일한 주어라는 정보를 나타낸다. 주어와 술어구가 결합하는 이 과정에서 항가원리(valence principle)는 ②AP의 항가자질의 일종인 주어의 값 ②NP를 삭제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므로 ①AP에서 핵자범주와 동등한 수준에서 필요한 항가자질은 [SUBJ <②NP>]인 것이다. 그러므로 ①AP의 내부에 나타난 ②NP가 마치 항가원리를 위반한 것처럼 보아서는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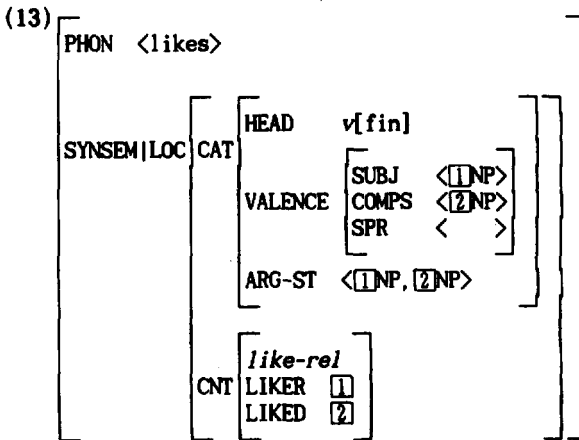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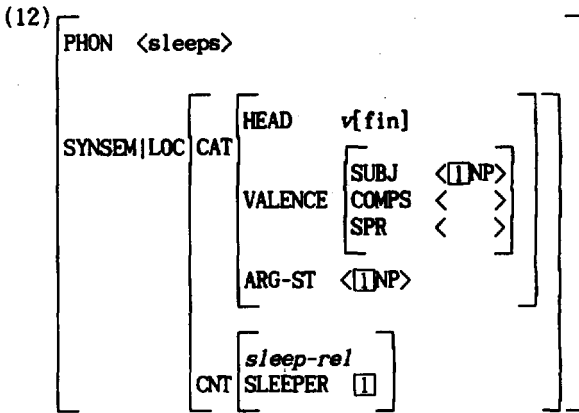
지금까지 우리는 구절기호를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제약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형용사구를 술어구로 가진 이중주어 구문을 기술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i)통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국어의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주어를 선택한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ii)이중주어 구문에 있어서 제1주어는 일반적인 형용사구의 단순한 주어가 아니라 제2주어와 결합하여 만들어진 형용사구의 주어라는 국어의 고유한 현상을 사실대로 반영한다. 그리고 iii)이 방법을 여러 개의 주어를 가진 구문에도 적용하면 중주어 구문의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 이상의 주어를 가진 구문에서 관찰되는 재귀사의 결속 현상을 현재의 제약만으로 기술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위범주화자질이 항가자질로 바뀌는 과정에서 자질의 내용과 기능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현재의 핵어문법은 표준핵어문법과 다르게 문법적 관계를 기술하려면 구성성분의 결합관계를 다루는 항가자질과 결속이론(binding theory)을 전개하기 위한 자질인 논항구조(argument structure)로 분립된 통사자질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려면 먼저 단주어 구문과 이중주어 구문에서 어휘핵어로 쓰이는 동일한 어형(word form)의 형용사의 논항구조를 정확하게 설정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국어에서 드러나는 결속 현상에 대한 일반화와의 논항구조를 연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4. 이중주어 구문과 논항구조

해어문법은 어휘주의(lexicalism)에 입각하여 통사-의미적 현상을 기술하는 대표적인 이론 가운데 하나이다. 그래서 어휘해어는 흔히 예상하는 것보다 대단히 많은 문법적 정보를 자질구조로 가진다. 예컨대 문장의 구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영어의 자동사와 타동사는 다음과 같은 자질구조를 가진다.





(12)-(13)의 자질구조는 표준핵어문법(Pollard & Sag: 1987, 1994의 ch.1-ch.8)에서 어휘핵어가 가진 정보를 표기하는 것과는 상당히 달라져 있다. 어휘핵어의 통사적 정보는 크게 자질 VALENCE와 ARG-ST로 나타낸다. VALENCE는 문장의 표면적인 구조(정확히 말하면 성분순서 매김원리(Constituent Ordering Principle)가 적용되기 이전의 미결정 구조)에서 구성성분들의 문법적 관계를 반영한다. 이 자질은 구절기호 상에도 나타나고 항가원리와 유형적 제약의 협동으로 삭제된다.

반면에 어휘핵어의 통사적 논항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자질 ARG-ST는 표면적인 구조에서 논항의 역할을 하는 구성성분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통사자질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자질이 어휘핵어가 가진 정보의 일부로 나타날 뿐이며 구절기호 상에 전혀 나타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되지도 않는 특성을 가진 순수한 통사자질이다.<sup>2</sup>

이처럼 VALENCE와 ARG-ST가 협동적으로 드러내는 내용은 핵어문법에서 과거 우리가 통사적인 의미에서 하위범주화(subcategorization)라고 부르는 것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다. 앞으로 어휘핵어의 통사적 정보, 특히 통사적인 의미에 있어서 어휘핵어의 하위범주화에 대한 언급은 Manning & Sag(1997)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두 개의 자질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문장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어휘핵어는 자신과 결합하는 모든 항가적 요소에 대한 정보와 이 가운데 논항으로 쓰이는 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연계하여 나타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12)와 (13)에 보인 자동사와 타동사의 자질구조는 모든 어휘기호의 문법적 관계를 필수적으로 항가자질과 논항구조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예시한 것이다. 이는 이중주어 구문의 구조를 기술하는 출발점이 무엇이며 이들이 가진 정보가 무엇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이중주어 구문과 관련된 항가자질과 그에 관련된 제약을 제시하였으므로 이 절에서는 이중주어 구문과 관련된 형용사의 논항구조에 한정하여 다루기로 한다.

논항(argument)이라는 개념은 이론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술어논리(predicate logic)에 따르면 자연언어의 자동사/형용사는 오직 하나의 논항을 가지는 반면에 타동사는 두 개의 논항을 가지는 것으로

---

2. 이 자질을 의미적 자질인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13)의 ARG-ST의 값으로 나열된 요소들이 구조공유에 의하여 의미적 정보를 나타내는 CNT 값의 내부에 들어있는 의미역할(semantic role)을 담당하는 자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자질이 통사적 자질이라는 것이 더욱 분명해진다.

고정되어 있다. 범주문법(categorial grammar)은 일반적으로 그 통사적 연산(syntactic operation)에 있어서 논항은 언제나 하나이다. 다른 한편으로 지배-결속 이론은 어휘핵어인 동사로부터 의미역(theta-role)을 부여받은 명사구만을 논항으로 정의한다. 그래서 동사의 하위범주화라는 전통적인 개념과 관련되어 구절기호를 구성하는 성분 가운데 수의적(optional)이 아닌 필수적인 성분만을 논항으로 설정하게 된다.

이러한 논항에 대한 배경적 지식은 그 개념에 혼란을 가져온다. 예컨대 자동사/형용사인 어휘기호는 하나의 논항을 가지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므로 이들이 동일한 어형을 가지면 언제나 하나의 논항만을 가져야 하는 것처럼 지나치게 일반화하는 경향이 그것이다. 그리고 논항구조와 관련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의 수준에서 볼 때 하위범주화된 필수적 명사구만을 논항으로 다루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이와 다르게 Weibelhuth(1997)는 여러 언어의 사동구문에서 사동사(causatives)가 갖는 여러 가지 유형의 논항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논항의 본질과 그 구조에 대한 견해는 이론에 따라 다르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논의는 논항구조의 기본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국어의 결속 현상을 다룰 수 있는 어휘핵어의 바람직한 논항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 (14) a. 사람이 간다/길을 간다.  
 b. 아이들이 방에서 논다/웃을 논다.  
 c. 새가 난다/하늘을 난다.  
 d. 학생이 학교에 다닌다/학교를 다닌다.

(14)의 어휘핵어들은 비록 동일한 어형(word form)을 가진 어휘기호이지만 자동사/타동사로 구분된다. 그래서 이들은 [ARG-ST <[1NP]>]와 [ARG-ST <[1NP], [2NP]>]라는 두 가지 논항구조를 가진다. 이는 어휘핵어와 관련된 논항의 수효가 어휘기호의 형태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휘핵어가 나타내는 의미적 관계(semantic relation)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비록 자동사와 타동사가 동일한 형태의 어휘라 하더라도 이들은 별개의 논항구조를 가져야 함을 보여준다.

- (15) a. 나는 간다.  
 b. 나는 서울에 간다.  
 c. 나는 내일 서울에 간다.

- d. 나는 내일 비행기로 서울에 간다.
- e. 나는 내일 비행기로 김군하고 서울에 간다.

위 예문에서 어휘핵어로 쓰인 ‘가-’는 자동사이므로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하나의 논항을 가진다. (15a)를 제외한 나머지 예문들은 핵어-부가어 도식(Head-Adjunct Schema)으로 그 구조를 기술할 수 있다. 이 도식은 위에서 아래로 점점 복잡해지는 구조를 하나의 기제만으로 통사적 결합 과정을 설명하는 데 기여한다. (15)의 예들은 하나의 도식을 이용하여 그 구조를 기술할 수 있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이들은 각기 다른 유형의 구절기호이다. 만일 하위범주화된 성분만이 어휘핵어의 논항이라는 견해를 받아들여야 한다면 위 예들은 모두 어휘핵어인 ‘가-’가 주어인 ‘나’라는 하나의 논항만을 가지는 것이 된다.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15e)에서 주어를 제외한 나머지 명사구인 ‘내일’, ‘비행기’, ‘서울’과 ‘김군’은 비록 수의적인 성분이라 할지라도 문장의 전체적인 의미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이들은 비록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힐 수는 없으나 어휘핵어와 관련하여 의미적으로 모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런 의미에서 어휘핵어의 논항구조와 명사구인 수의적 성분의 관계를 정확하게 밝혀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음 예들은 수의적 성분의 내부에 재귀사가 들어 있는 경우이다.

- (16) a. The door<sub>i</sub> opens *of itself*.
- b. The nature<sub>i</sub> is changing *in itself*.
- c. John<sub>i</sub> tried to solve the problem *for himself*.

만일 하위범주화된 명사구 성분만이 논항의 지위를 부여받는다면 (16)의 예들은 모두 주어로 쓰인 명사구 하나만을 논항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 이 텔릭체로 보여준 수의적 성분의 내부에 들어있는 명사구는 재귀사로서 주어와 묶이는 현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속 현상을 설명하려면 기본적으로 어휘핵어는 두 개 이상의 논항을 가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항에 대한 고정된 견해를 따르면 (16)은 모두 하나의 논항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수의적 성분의 일부로 들어있는 재귀사가 주어와 결속되는 분명한 사실을 전혀 언급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수의적 성분도 논항의 일부로 도입되어야 할 필요를 보여주는 것이다.<sup>3</sup>

- (17) a. 공부하다 → a'. 공부를 하다  
 b. 일하다 → b'. 일을 하다

(17a)-(17b)는 명사에 경동사(light verb) '-하-'가 붙어서 만들어진 동사이다. (17a')-(17b')는 본래의 명사를 논항으로 가진다. 이는 동사가 자신의 내부에 논항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동일한 상황이 사역동사의 경우에도 생겨난다.

- (18) a. 공부시키다 → a'. 공부를 시키다  
 b. 일시키다 → b'. 일을 시키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역으로 본래의 논항을 가진 동사들이 (17a,b)와 (18a,b)처럼 새로운 동사를 만들면 이들은 새로운 어휘핵어로서 본래의 논항을 그 내부에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Bratt(1996)는 논항합성(argument composition)에 의하여 국어의 사동구문을 기술하고 있다. 이는 어휘기호의 논항구조가 단순히 어휘핵어와 관련된 명사구만을 논항으로 나타내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논항구조란 지금까지 몇 가지 부류의 예를 통하여 살펴 본 바와 같이 단순히 어휘기호의 형태에 따라 논항의 수요를 결정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 어휘핵어의 의미적 관계를 반영하는 측면도 동시에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혀졌다. 그리고 하위범주화된 성분만이 어휘핵어의 논항이라는 지위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수의적 성분도 수의적 논항(optional argument)으로서 논항구조의 일부로 참여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는 어휘핵어의 논항구조를 이루는 과정에서 그 구성이 예상하던 것보다 더 복잡한 구조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핵어문법이 가정하는 논항구조의 성격과 본질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요구하는 것이다.

---

3. (16c)에서 부정사구 'to try solve the problem'은 필수적 성분으로서 Pollard & Sag(1987, 1994)에 따르면 의미적 정보의 일부로 통상적으로 언급되는 행위자(agent), 수동자(patient), 경험자(experiencer)등의 역할로 정의되지 않더라도 논항역할(arg-role)을 하는 성분이다. 이 논문에서 논의되는 바에 따르면 명사구가 아닌 다른 필수적 성분이므로 논항으로 쓰일 수 없으나 이 성분은 그 내부에 논항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전체 문장의 논항구조를 나타낼 때 그 구조는 계층적일 수 있다는 시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핵어문법의 틀 안에서 논항구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이중주어 구문을 기술하기 위한 논항구조의 정립에 한정하여 그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이제 앞에서 예를 든 단주어 구문과 이중주어 구문을 여기에 반복한다.

- (19) a. [코가<sub>SUBJ2</sub> [길다]<sub>AP</sub>]<sub>AP</sub>.  
 b. [코끼리는<sub>SUBJ1</sub> [코가<sub>SUBJ2</sub> [길다]<sub>AP</sub>]<sub>AP</sub>]<sub>AP</sub>.

단주어 구문의 어휘핵어인 형용사는 하나의 논항을 가진다. 그래서 (19a)의 어휘핵어 '길-'은 당연히 [ARG-ST <2NP>]를 가진다. 그러나 (19b)는 구조상으로 단주어 구문에 제1주어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구조이므로 이와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그리고 이 제1주어는 이 어휘핵어의 주어가 아니라 단주어 구문의 주어이다. 이러한 특성들은 앞 절에서 유형적 제약에 의하여 이를 설명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 재론하지 않는다.

의미론에 입각한 사람들은 (19b)에서 제1주어는 술어구인 단주어 구문의 논항으로 보아 그 의미를 해석하면 적절한 의미해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는 일차순 술어논리(firs-order predicate logic)의 함수와 논항의 관계를 이용하여 진리조건을 제시하는 의미이론에서 가능한 판단이다. 반면에 핵어문법이 가정하는 논항과 관련된 의미해석은 의미적 정보를 나타내는 자질 CONTENT와 그 값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논항에 대한 두 이론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더욱이 항가자질이 문법적 관계의 일부를 나타내기 위하여 어휘핵어의 통사적 정보의 일부가 되고 어휘핵어의 투사과정에서 삭제되는 성격을 가지는 반면에 논항구조는 오로지 어휘기호의 수준에서 나열되어 결속 현상을 다루는 자리로서 문법적 관계를 보여주는 순수한 통사자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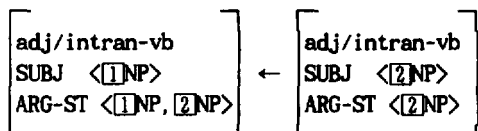
이에 따라 제1주어와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제1주어를 기본적으로 하나의 논항을 갖는 형용사인 어휘핵어의 논항으로 넣어주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제시하는 일차적인 전략은 여러 개의 주어가 첨가되어 중주어 구문을 형성하더라도 그 어휘핵어는 언제나 형용사라는 문법적 범주이므로 하나의 논항을 필수적인 값으로 가지도록 한다. 그리고 새로운 주어가 첨가되면 이들을 차례로 논항구조의 일부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다.

제1주어는 이중주어 구문이라는 완성된 하나의 유형에서는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이 유형을 단주어 구문과 제1주어의 결합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보면 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제1주어가 보여주는 통사적 행위는 마치 영어의 수의적 성분인 부사가 규칙적으로 첨가되는 것과 동일하다. 이러한 수의적 성분이 논항의 일부가 될 수 있어야한다는 점에서 제1주어가 단주어 구문의 어휘핵어의 논항구조의 일부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또한 동일한 어형의 어휘핵어에 새로운 논항이 첨가될 수 없다는 것은 언어 현상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한 것이므로 제1주어가 단주어 구문의 어휘핵어의 논항구조의 일부로 들어가는 것이 무리가 아닌 것이다.

우리가 제1주어를 논항으로 첨가할 때에 한 가지 고려할 사항은 첨가되는 논항의 위치를 지정하는 일이다. 첨가되는 논항은 논항구조의 값의 최초의 요소가 차지하는 위치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새로운 논항이 첨가되려는 본래의 논항구조의 값에 이미 단주어 구문의 주어가 어휘핵어의 논항으로 들어있고, 이 어휘핵어와 새로운 논항의 의미적 관계는 이미 들어있는 본래의 논항보다 더 밀접하지 않기 때문이다.

#### (20) 어휘핵어의 논항첨가 제약4



이 제약은 완전자동사/형용사가 주어와 구조를 공유하는 필수적 논항을 가지는 경우라면 언제나 새로운 주어와 그 구조를 공유하는 새로운 논항을 첨가하는 기능을 가진 제약이다. ←는 ‘--인 경우에만’(only if)으로 해석된다. 이 제약이 하나의 논항을 가진 논항구조에 적용되면, (20)의 역화살표 원 쪽과 같이 새로운 주어와 구조를 공유하는 논항이 본래의 논항에 첨가되어 두 개의 논항을 가지게 된다. 이 때에 첨가된 논항은 본래의 논항의 원 쪽에 위치하여 높은 사성을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19b)의 어휘핵어 ‘길-’은 두 개의 논항을 가지게 된다. 여기에서 [1NP]은 제1주어인 논항이고, [2NP]는 제2주어인 논항이다.

4. 이중주어 구문의 논항구조를 어휘기호의 수준에서 단순히 평면적으로 나열할 것인가 아니면 계층성을 가진 구조, 예컨대 [ARG-ST <[1NP], <[2NP]>>]와 같이 나타낼 것인가는 단순하지 않은 논항구조를 가진 국어의 사동구문과 그 밖의 여러 가지 다른 부류의 언어가 보여주는 논항구조를 살펴 본 후에 결정할 일이다.

관계를 나타내는 표기의 보편적인 규약에 따라 (20)의 역화살표 오른 쪽에 있는 논항구조는 어휘핵어가 이미 보유한 필수적인 논항을 그 값으로 가지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 정의에 따라 [ARG-ST <②NP>]는 하나의 논항을 가진 논항구조와 (20)의 제약이 적용되어 얻어진 논항구조를 모두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 제약이 하나의 논항을 가진 완전자동사/형용사에 한번 적용되면 그 어휘기호는 두 개의 논항을 가진다. 그리고 (20)의 제약에 의하여 두 개의 논항을 가진 어휘기호는 정의에 의하여 역화살표 오른 쪽과 같이 나타내므로 이 어휘기호에 이 제약이 적용되면 세 개의 논항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이 제약은 정의에 의하여 귀환성을 가지므로 국어의 삼중주어 또는 다중주어 구문에서 쓰이는 어휘핵어의 논항구조를 정확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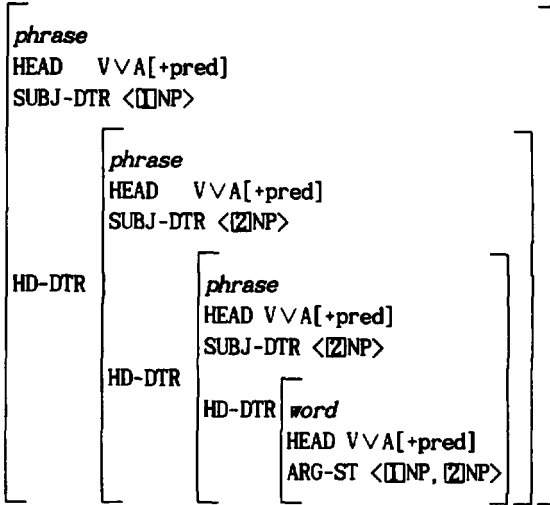
이 제약은 특별한 유형의 어휘기호, 즉 완전자동사/형용사가 가지는 본래의 논항에 새로운 논항을 첨가하도록 보장하는 제약이다<sup>5</sup>. 이 제약은 어휘부에 존재하는 어휘기호가 가지는 임의의 논항구조와 새로운 논항구조의 상관관계를 ←에 의하여 언급하는 관계적 제약(relational constraint)이다. 그러므로 이 제약을 어휘부에 한 번만 언급하면 어휘기호인 모든 완전자동사/형용사라는 유형에 언제나 적용되는 효과를 가진다.<sup>6</sup>

이제 이 제약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살펴보자. (19a)의 어휘핵어는 (20)의 역화살표 오른 쪽에 있는 논항구조를 가진다. 여기에 논항첨가 제약이 적용되면 역화살표의 왼 쪽과 같은 논항구조를 보장한다. 이는 (19b)와 같은 이중주어 구문의 어휘핵어의 논항구조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19b)의 어휘핵어 '길-'은 [ARG-ST <①NP, ②NP>]인 논항구조를 가지게 된다. 이제 논항첨가 제약에 의하여 얻어진 논항구조를 (9)에 보인 이중주어 구문의 제약(1차)에서 미루어 두었던 어휘핵어의 논항구조에 대한 정보로 들어가면 이중주어 구문의 제약은 완성된다.

5. 그러나 입력부에 함수를 적용하여 그 출력부를 얻어내는 주어추출어휘규칙(subject extraction lexical rule)과 같이 통사적 기능을 부여하여 어휘규칙의 본질적인 기능을 벗어나고 형식이론적 위상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류의 어휘규칙과는 전혀 다른 역할을 하게 된다.

6. 하나의 논항만을 가지는 완전자동사/형용사의 기본적인 논항구조에 첨가되는 논항의 수효를 몇 개로 제한할 것인가의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은 자료를 확인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이 문제는 새로운 주어만이 아니라 수의적 요소 내의 지시적 명사구가 논항으로 쓰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주어를 가지는 구문은 기본적으로 어휘부 내의 어휘핵어에 이와 같이 새로운 주어인 논항을 첨가하는 장치를 가져야만 그 구조를 기술할 수 있는 것이다.

(21) 이중주어 구문의 제약



이 제약은 여러 단계의 다양한 논의를 거쳐 완성된 것이지만 그 결과는 아주 간단하다. 이중주어 구문의 어휘핵어에 단순히 [ARG-ST <[ ]NP, [ ]NP>]로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앞 절에 예들 든 (11)의 수행도의 맨 아래에 나타난 어휘핵어에 이 정보를 넣어주기만 하면 간단히 이중주어 구문의 구조를 기술하게 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중주어 구문을 단주어 구문과 구별되는 별개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논항첨가 제약에 의하여 얻어진 논항구조를 그에 따른 유형적 제약의 일부로 첨가하여 그 구조를 기술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방법을 이용하여 여러 개의 주어물 가질 수 있는 구절기호의 유형이 가지는 구조를 기술할 수 있는 터전을 아울러 마련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한편으로 구절기호의 유형적 제약이 그 구조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문법적 관계에 대한 정보를 어휘기호에 명세하고 이를 보장하는 관계적 제약을 어휘부의 일부로 언급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구절기호의 통사적 구조를 어휘기호를 중심으로 기술하는 최근의 어휘주의적 기술 방법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 5. 이중주어 구문의 결속

어휘핵어의 논항구조는 항가자질과 함께 구절기호의 구조를 기술함에 있어서 종전의 보편적인 의미의 하위범주화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이미 제시한 논항첨가 제약은 어휘핵어로 하여금 이미 보유한 필수적인 논항에 새로운 논항을 첨가하도록 한다. 이는 새로운 논항구조를 만들어 내어 논항구조라는 자질의 체계를 부분적으로 확장한 것이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제안이 다른 문법적 현상, 즉 국어의 결속 현상과 관련하여 어떤 효과를 가지는가를 점검할 것이다.

핵어문법에서 논항구조는 결속이론이 전개되는 자리(locus)이다. 하위범주화 자질의 사성에 입각한 Pollard & Sag(1994)의 제안은 하위범주화 자질이 항가자질과 논항구조라는 두 개의 자질로 수정됨에 따라 Manning & Sag(1997)은 다음과 같은 결속이론을 제시한다.

### (22) 핵어문법의 결속이론

Principle A. A locally A-commanded anaphor must be locally A-bound.

Principle B. A personal pronoun must be locally A-free.

Principle C. A nonpronoun must be A-free.

이 원리는 지배-결속 이론이 제시한 것과 형식적인 면에서 흡사하지만 성분통어(c-command)라는 형상적(configurational) 개념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원리 A의 논항통어(A-command)란 어휘핵어의 ARG-ST의 값에서 사성의 정도가 낮은 요소가 높은 요소를 통어하는 것을 뜻한다. ‘국부적으로 논항-결속된다(=locally (A-bound))’는 것은 절(clause)의 한계 내에서 사성을 바탕으로 선행사에 묶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항자유(A-free)는 선행사와 묶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22) a. John<sub>i</sub> likes himself<sub>i</sub>.

b. \*John<sub>i</sub> knows Bill<sub>j</sub> likes himself<sub>i</sub>.

c. John<sub>i</sub> knows Bill<sub>j</sub> likes himself<sub>j</sub>.

(22a)의 어휘핵어 *likes*는 [ARG-ST <NP<sub>i</sub>, NP:ana<sub>i</sub>>]를 가진다. 즉 주어인 NP<sub>i</sub>와 보어인 NP:ana<sub>i</sub>를 논항구조의 값으로 가져서 이 NP들이 원리 A에

의하여 공지표(coindex)된다. 따라서 (22a)가 원리 A에 의하여 적형적인 문장임을 예측하게 된다. 반면에 (22b)에서 *likes*는 [ARG-ST <NP<sub>j</sub>, NP:ana<sub>j</sub>>]로서 재귀사 *himself*가 상위절의 주어인 *John*과 공지표되어 있으므로 비적형적인 문장이 되는 것을 예측한다. 그러나 (22c)에서 *likes*는 *himself*가 *Bill*과 공지표되어 원리 A에 의하여 적형적인 문장임을 설명한다. 이처럼 HPSG III의 결속이론은 어휘핵어의 ARG-ST 값에 나타난 조용요소(anaphoric element)가 그 보다 사성의 정도가 낮은 NP와 결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 원리들은 영어의 결속 현상을 다루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이중주어 구문의 통사적 특성을 다루는 자리에서 이 구문이 보여주는 결속 현상도 어휘기호의 통사적 정보를 바탕으로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제 논항첨가 제약에 의하여 만들어진 논항구조가 이중주어 구문에서 보여주는 결속 현상을 설명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자.

먼저 이러한 논의를 위해서 국어 재귀사의 결속에 대한 보편적인 이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재귀사인 '자기'는 영어의 재귀사와 다르게 한 문장 내에서 주어라는 논항에 묶인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다음의 예들은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한다.

- (23) a. 미자<sub>i</sub>는 자기<sub>i</sub>를 사랑한다.  
 b. 미자<sub>i</sub>는 [철수<sub>j</sub>가 자기<sub>i</sub>를 미워한다고] 믿는다.  
 c. 미자<sub>i</sub>는 [자기<sub>i</sub>가 철수<sub>j</sub>를 미워한다고] 생각한다.  
 d. 미자<sub>i</sub>는 [자기<sub>i</sub>의 얼굴이 잘 생겼다고] 자랑한다.

모든 예문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재귀사는 주어와 묶인다. 그러나 (23b)의 재귀사 '자기<sub>i</sub>'가 두 개의 주어와 묶일 수 있는 것은 이 표현의 지시대상(referent)이 무엇이나와 관련된다. 담화의 맥락에 의하여 그 지시대상이 결정되면 어느 하나의 주어와 묶이게 된다.<sup>7</sup> 이런 점에서 다음과 같은 결속 원리를 제시할 수 있다.

#### (24) 국어의 결속원리

국어의 재귀사는 사성의 정도가 가장 낮은 논항인 주어와 묶인다.

7. 국어의 보편적인 결속이론에 대한 자세한 논의와 그에 관련된 논항구조의 기술은 필자가 준비중인 논문에 나타나 있다.

앞 절의 (6)에 예를 든 재귀사 '자기'는 (23)의 다른 구문의 구조에서 주어진 논항과 묶이는 것처럼 중주어 구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묶이는 현상을 보여준다. 특히 (6b)와 (6d)에서 '자기'는 삼중주어 구문의 최하위절의 주어로 나타나지만 최상위절의 주어와 묶이게 된다. (6c)의 [자기의 친구들이]는 재귀사가 명사구 안에 들어있으면서도 상위절의 주어와 묶인다.

- (6) a. [미자<sub>i</sub>는<sub>SUBJ1</sub> s<sub>2</sub>[자기<sub>i</sub>가<sub>SUBJ2</sub> [싫다]<sub>AP</sub>]<sub>AP</sub>.
- b. [미자<sub>i</sub>는<sub>SUBJ1</sub> [[자기<sub>i</sub>가<sub>SUBJ3</sub> 영리한 것이]<sub>SUBJ2</sub> [좋다]<sub>AP</sub>]<sub>AP</sub>.
- c. 오늘 밤에 [영수<sub>i</sub>는<sub>SUBJ1</sub> [자기<sub>i</sub>의 친구들이]<sub>SUBJ2</sub> [모인다]<sub>VP</sub>]<sub>VP</sub>.
- d. 오늘 밤에 [영수<sub>i</sub>는<sub>SUBJ1</sub> [자기<sub>i</sub>의 친구들이]<sub>SUBJ3</sub> 모이는 것이]<sub>SUBJ2</sub> [싫다]<sub>AP</sub>]<sub>AP</sub>.

(6b)에서 [자기<sub>i</sub>가 영리한 것이]는 포화된 형용사구를 자신의 내부에 가진 명사구이다. 이 구조에서 어휘핵어 '영리하-'가 '자기<sub>i</sub>'를 논항으로 가지고, '것-'은 이러한 논항을 가진 형용사구를 그 내부에 가지므로 논항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이 명사구는 결과적으로 그 내부에 '자기<sub>i</sub>'라는 논항을 가지게 된다. (6c)-(6d)에서 '자기<sub>i</sub>의 친구들이'는 논항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명사구로서 그 내부에 '자기<sub>i</sub>'라는 재귀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6b)와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6b)의 논항구조의 일부를 [2]NP[[3]NP:AN<sub>i</sub>]로 표기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6c)는 [2]NP[[3]NP[[4]NP:AN<sub>i</sub>]로 나타낼 수 있다.

이는 두 가지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첫째 어휘핵어의 논항이 단순히 [2]NP등으로 나타낼 수 있는 논항일 수 있으나, [2]NP[[3]NP:AN<sub>i</sub>]와 같이 복합적인 논항(complex argument)일 수도 있다. 둘째 이 복합적인 논항은 그 내부에서 계층적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이를 < >안에 표기하여 나타내기로 한다. 기본적으로 완전자동사/형용사 유형의 어휘기호는 하나의 논항만을 가지면 완성된 논항구조를 가지게 된다. 이중주어 구문에 쓰인 어휘핵어는 이러한 기본적 유형과 다르게 두 개의 논항을 가져야 한다. 이미 제시한 바와 같이 어휘부에서 작용하는 논항첨가 제약은 (6)의 어휘핵어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논항구조를 가지도록 한다.

- (25) a. [ARG-ST <①NP<sub>i</sub>, ②NP:ANAI>]  
 b. [ARG-ST <①NP<sub>i</sub>, <②NP[③NP:ANAI]>>]  
 c. [ARG-ST <①NP<sub>i</sub>, <②NP[③NP:ANAI]>>]  
 d. [ARG-ST <①NP<sub>i</sub>, <②NP[③NP[④NP:ANAI]>>>]

(25)의 논항구조는 그 값으로 나열된 최초의 요소인 ①NP<sub>i</sub>는 모두 제1주어이고, ②NP에 의하여 인도되는 단순하거나 복잡한 요소들은 제2주어인 명사구를 나타내는 논항으로서 모두 완전자동사/형용사가 필수적으로 가지는 기본적 논항이다. 이러한 논항구조는 결속이론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이룬다. 여기에 앞에 제시한 국어의 결속원리가 적용되면 국어의 이중주어 구문의 결속 현상은 타당하게 기술할 수 있게 된다.

만일 완전자동사/형용사가 언제나 하나의 논항만을 가진다는 고정된 관념에 집착하고, 임의의 연산을 통하여 위의 논항구조에서 ①NP<sub>i</sub>를 도출해 내지 못한다면 이중주어 구문이 보여주는 재귀사의 결속 현상은 설명할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버리게 된다. 왜냐하면 결속에 관한 논의는 원천적으로 두 개 이상의 논항을 가져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비록 이 글에서 무엇이 동일한 어형의 어휘기호로 하여금 상이한 논항구조를 가지도록 하는가를 밝히지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의 논항을 가지는 완전자동사/형용사에 귀환적으로 논항의 첨가를 보장하는 제약을 제시하여 이중주어 구문이 드러내는 특이한 문법적 현상을 잘 포착하여 그 구조를 기술할 수 있었다. 이는 궁극적으로 어휘기호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자질구조의 일부를 확장함으로써 구절기호의 구조를 기술하는 고유한 유형적 제약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어휘어의 기술능력을 확장한 어휘주의적 접근 방법을 충실하게 따른 것이다.

## 6. 결론

국어의 이중주어 구문은 단주어 구문이 하나의 술어구로서 또 하나의 주어와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구조적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특성은 당연히 어휘어의 항가와 논항이라는 정보로 나타내야 한다.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어를 단주어 구문인 술어구의 항가로 나타내고, 이 주어를 어휘어의 새로운 논항으로 가진다는 유형적 제약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유형적 제약을 제시하는 저변에는 어휘어의 논항구조와 직접

적으로 관련되는 관계적 제약인 논항첨가 제약이 들어있다. 이 제약은 국어 어휘기호의 논항구조에 대한 보편적 현상을 바탕으로 제시된 것으로 어휘기호의 한 유형인 완전자동사/형용사로 하여금 하나 이상의 논항을 포함하는 논항구조를 갖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그 결과로 이중주어 구문에서 나타나는 결속 현상을 타당하게 기술하는 성과를 갖게 되었다.

이는 구절기호의 구조를 기술하기 위한 어휘주의적 접근 방법이 부분적이지만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 것이다. 현재 논항구조의 본질에 대한 연구와 여러 언어의 어휘해어가 보여주는 논항구조의 차이를 아우르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러한 연구의 의의를 짐작할 수 있다.

## References

- 김동식. 1984. “동사 ‘되다’의 연구,” 국어국문학 92.
- 박효명. 1995. “영어 Wh-의문문 구조의 제약기반적 분석,” 언어학 3:151-192, 대한언어학회.
- 박효명. 1996. “해어문법의 새로운 전개,” 어학교육 25-2, 1-50, 전남대 언어교육원.
- 박효명. 1997. “국어 이중주어 구문의 제약기반적 분석,” 언어학 5-1: 99-127, 대한언어학회.
- 박효명. (준비중). “논항구조와 국어 “자기”의 결속”.
- 서정수. 1996. 현대 한국어문법 연구의 개관(개정판). 서울: 한국문화사.
- 장석진. 1993. 정보기반 한국어 문법. 광주: 언어와 정보.
- Alsina, Alex. *The Role of Argument Structure in Grammar: Evidence from Romance*. Stanford: CSLI Publications
- Bouma, Gosse, Rob Malouf, and Ivan Sag. 1998(ms.) Satisfying Constraints on Extraction and Adjunction.
- Bratt, Elizabeth Owen. 1996. *Argument Composition and the Lexicon: Lexical and Periphrastic Causatives in Korean*, PhD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Davis, Tony. 1997. *Lexical Semantics and Linking in the Hierarchical Lexicon*, PhD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 Manning, Christopher D., Ivan A. Sag. and Masayo Iida, 1997(ms.) *The Lexical Integrity of Japanese Causatives*.
- Manning, Christopher D. and Ivan Sag. 1997(ms.) Dissociations between argument Structure and Grammatical Relations.
- Pollard, Carl and Ivan A. Sag. 1994.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eape, Mike. 1994. "Domain Union and Word Order Variation in German." In *German Grammar in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ed. J. Nerbonne, K. Netter and C. Pollard. CSLI Lecture Notes Series 46: 151-197.
- Sag, Ivan A. 1997(ms). English Relative Clause Constructions. To appear in JL.
- Webelhuth, Gert. 1998(ms.) Causative and the Nature of Argument Structure.
- Xue, Ping, Carl Pollard, and Ivan A, Sag. 1994. A New perspective on Chinese *ziji*. In *Proceedings of the West Coast Conference on formal Linguistics*, 432-447.

박효명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  
전남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영어영문학과  
hpark@chonnam.chonnam.ac.kr  
Fax: +82-62-530-3159